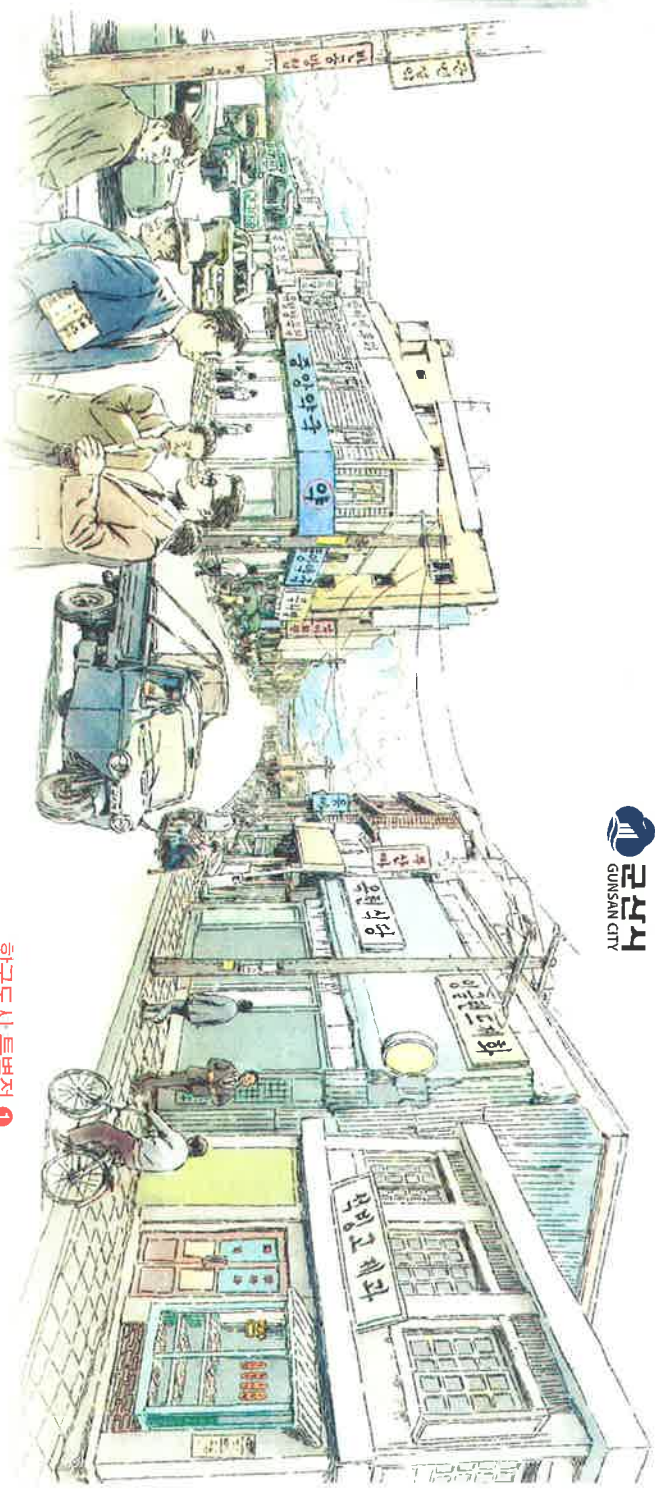




오거리 골목 추억의 선술집

도심의 뒷골목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골목의 상징은 선술집이다.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날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던 곳이었다. 목포 선술집 중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이 추억하는 동천주점은 고래고기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막걸리, 삼학, 보해 등 목포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지역 술이 있었다. 오거리 골목에는 정과 흥이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선술집 문화가 있었다.



항구도시 특별전 ①

문학의 거리

목포 문학은 바다가 품은 감수성과 항구도시의 문화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박화성은 목포의 근대문학을, 차병석은 목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리고 시인 김지하 역시 목포의 아들이다. 목포는 지방 소도시이지만 문학잡지가 일찍부터 발간되었다. 1930년 『호남평론』, 1945년 『예술문화』, 1951년 『갈매기』와 『전우』가 발간되었다. 1952년에는 『시정신』, 1960년에는 『목포문학』이 창간되었다. 196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동인지인 『신문시대』를 5집까지 발간하였다. 그리고 목포 시내 학교의 문예지들이 꾸준히 발간되었으며 이는 훗날 목포문학의 밑거름이 되었다.



항구도시 특별전 ①
목포
오거리에서
문학을 만나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Gunsan Modern History Museum
전라북도 군산시 해방로 240 (정마동 1-67)
TEL. 063-443-8283 FAX. 063-443-8284
<http://museum.gunsan.go.kr>



목포
오거리에서
문학을 만나다

2014. 3. 20(목) ~ 5. 13(화)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주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초대의 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항구도시 특별전시리츠의 첫 전시로 “목포 오거리에서 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공동 주최하여 추진하는 전시로써 100여 년 전 바다와 갯벌을 매립하여 형성된 목포 원도심 중심지 ‘오거리’ 도시공간을 소개하고, 1950~80년대 선술집과 다방갤러리에서 문학, 예술, 철학, 그리고 삶을 논하였던 목포사람들의 진솔한 생활과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본 전시는 목포관련 소중한 개인자료를 주저 없이 대여해준 많은 분들과 이를 모으고 정리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분들의 노고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소장구 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료를 대여해주신 소장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산과 같은 항구도시로서 비슷한 역사를 공유하는 목포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목포 오거리에서 문화를 만나다” 기획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남도문화와 항구문화의 기백과 감성을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 3. 20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정 수

다방 갤러리와 목포미술

1950~80년대 오거리 시내 중심의 다방들은 작은 미술관이었고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목포의 미술문화를 꽃 피웠다. 목포의 근·현대 미술은 전통 한국화와 서양화가 만나 목포화단을 구성하면서 뿌리를 내렸다. 그중에서도 남농 하건, 최당 장덕, 문원 문재석 등이 중심이 되어 목포화단을 이루었다. 서양화가들은 전남

최초의 미술동인 ‘목포미술원’과 ‘녹영회’를 창립하였다. 또한 1950년대 김환기와 양수아를 통해 한국 추상미술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목포의 음악 목포의 노래

예향이며 항구도시였던 목포는 전통 판소리에 사는 서편제에 속하는 고장으로 근대기에는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의 고향이다. ‘목포의 눈물’은 일제강점기 애절한 사회상을 잘 표현 한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1960년대 이후 목포 출신 가수로는 ‘가슴 아포게’, ‘민전’을 부른 남진, ‘여고시절’의 이수미, ‘먼 데서 오신 손님의 조미미’ 등이 있다. 이들이 활동하면서 목포는 항구, 그리움, 이별의 도시로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게 된다.



오거리에서 문화를 만나다

개항과 함께 서양문화가 밀려오면서 목포의 풍경은 크게 바뀌었다. 1899년부터 시작된 해안지역 매립과 외국인 거주지 조성공사로 온금동에서 만호진, 송도(현 동명동), 역전파출소에 이르는 지역은 근대적 도시공간이 형성되었다. 오거리는 이때 조성된 무안동의 변화한 중앙거리로서, 목포역-조선인 마을-일본인 마을-목포항이 연결된 다섯 길의 교차점이었다. 1950년대부터 목포 사람들은 무안동 중앙거리를 ‘오거리’라 불렀다. 목포의 상권은 오거리, 목포역 건너 차 없는 거리 등 무안동과 죽동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부흥하였다. 1960~80년대 목포시민과 젊은이들, 문화예술인, 지식인들은 이 거리를 아지트처럼 오거리 현대적 대중문화를 만끽하였다. 오거리는 그야말로 목포 문화의 중심지였다.

